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호 【루게 제25145호】 주제105(2016)년 1월 2일 (토요일)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21세기全民학습의 대전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 따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명마루로 비약해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천도개벽된 과학의 섬 속섬에 새세기全民학습의 대전당으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이 준공되었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웅장하게 솟아오른 과학기술전당은 당의全民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완벽하게 반영되고 날로 발전하는 주체적 건축예술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애국의 호소따라 산악같이 펼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만리마속도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전당을 로동당시대의 국보적인 건축물로 완공하였다.

우리 인민모두가 찾아와 마음껏 지식의 랍을 쌓을수 있는 과학기술전당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명정건축물로 일떠선것은 과학기술발전을 강성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높은 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려는 인민의 강렬한 지향을 세계앞에 보여주는 일대 사변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새해 주제105(2016)년 1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 만세!》,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리운 대형기둥들이 떠있었다.

동지, 로동철동지와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 지원자들, 과학기술전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기업소 일꾼들, 과학자, 교육자, 청년학생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고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어全民학습의 대전당을 세계적인 건축물로 회한하게 일떠세워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오수용

2 번 으 로 계 속

